

‘5·31지방선거’ 특별기고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응징했다. 5·31 지방 선거의 표심이다. 열린우리당의 참패였다. 한나라당의 승리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드러난 결과일 뿐이다. 과연 한나라당의 진정한 승리인가. 그들이 좋아서 찍었는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싫어서 안 찍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호남이 민영남 후보다. 그렇다면 호남은 왜 그를 밀었는가. 김대중 후보와 같은 값의 표를 주었는가. 50년 만에 잡은 정권을 왜 내주었는가.

그렇다면 호남은 왜 지역감정을 해소하려 했는가. 영남이 안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영남 정권을 말이다. 그들은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그것을 이용했다. 그것으로 정권을 이어갔다.

그리고 2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다. 오만과 오기만 넘쳐났다.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결국은 배신이었다. 그들 입에서 ‘부산 정권’이란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렇다고 호남이 ‘호남정권’소리를 기다렸던가. 아니다. 부산이고 호남이고 아예 그런 말이 안 나오길 기대했다. 그것을 노무현

저 없었다 할 수는 없다. 정치를 개혁했고 남북 문제에 힘썼다. 그러나 안 된 게 많았다. 못한 게 더 많았다.

이 없다. 그래서 노대통령도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다고 한 것 같다. 결국은 열린우리당도 깨질 거다. 친노 직계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소수라도 퇴임 후를 지켜줄 정치세력이다. 그것으로 자신의 명분은 보충할 거다.



이연홍 <뉴스앤뉴스 공동대표>

▲중앙일보 정치전문기자부장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정치전문 인터넷 매체 ‘뉴스앤뉴스’ 대표

與 참패는 오만과 오기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배신당한 호남민심의 응징

그가 잘나서였다. 아니다. 그의 인지도가 높아서였다. 아니다. 그가 세력이 있어서였다. 아니다.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였다. 그도 한 때 그것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DJ(김대중) 공천으로 부산에 출마했었다. 서울 종로를 버리면 서 말이다. 그리고 장렬히 전사했다. 그래서 그를 밀었던 거다. 그래서 그를 밀었던 거다.

무현을 골랐던 거다. 입양을 했던 거다. 친자식을 놔두고 말이다. 그렇게 태어난 노무현 정권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했는가. 가솔을 했고 새집을 차렸다. 열린우리당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호남은 그를 믿었다. 큰일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여겼다. 그래서 또 다시 표를 주었다. 2004년 총선이다. 그것으로 정권이 회생했다. 탄핵에서 헤어났다.

정권이 해줄 줄 알았다. 그러나 못했다. 아니 안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무엇인가. 응징이다.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배신을 응징하고 심판한 거다. 비단 호남만이 아니다. 영남도, 충청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저마다의 각기 다른 믿음들이 있었다. 뭔가 잘해주길 기대하는 믿음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들을 저버렸다. 물론 뭔가 하려고 애 쓴 건 사실이다. 그것마

늘어 온 거다. 어제가 모여 오늘이 된 거다. 그러나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된다. 내일은 오늘로 다시 다가올 거다. 그래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나 과연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할거다. 겸직 국무위원들도 정리할거다. 그리고 당과 거리를 둘 거다. 당은 그 사이 정계를 개편하려 할 것이다. 민주당과 고건씨를 끌어들이려 한다. 그러나 명분

친노 직계정당 탄생 가능성

그렇다면 선택은 호남인에 달렸다. 한 번은 속았다. 그러나 두 번은 안 속는다. 그렇다고 또 속일 거라고 예상해서도 안된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한다.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무엇이 참된 평화인 민주인가를. 어느 것이 우리의 내일인가를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광주의 소명이다.

“민주세력 통합없인 정권재창출 어렵다”

참패 후폭풍 與 ‘허우적’

최고회의 집안싸움... 당 해체론도 거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본 ‘5·31’ 이후 정국

‘선거 자충수’ 영남 세력 강경 대응키로 ‘9월께 정계개편 논의... 당 단합이 우선’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사퇴하는 등 여당발 정계개편론이 정치권에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올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소위 영남세력과의 일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열린우리당 양형일, 강기정, 김태홍, 김동철 의원 등 광주지역 의원들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회동을 갖고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광주지역 의원들은 ‘민주세력 통합’ 없이는 정권재창출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지방선거 참패로 당이 최대의 위기에 빠진 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보다는 당의 단합을 유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정계개편 시기 등과 관련하여 광주지역 의원들은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고건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 민주

당의 태도 등 외적 변수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계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광주지역 의원들은 문재인 전 수석의 ‘부산정권’ 발언과 정동영 의장의 ‘민주세력 대통합론’ 발언에 대해 정 의장의 사퇴를 김두관 최고위원, ‘정치적 품수’로 평가절하했던 이강철 전 특보 등 영남 강경세력이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지역적 기반을 약화시켰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양형일(광주 동) 의원은 “당의 단합을 이루고 난 뒤 민주세력 대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광주지역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영남 강경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갖고 향후 정국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유선호(영암 장흥) 의원은 “오는 5일 열리는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구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한 뒤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문제가 마무리 된다면 조만간 전남지역 의원들과 만나 민주세력 대통합 문제 등 향후 정국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며 “아직 당내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계개편 시기를 말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갑원(순천) 의원은 “정치권에서 여당발 정계개편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기를 맞은 열린우리당은 더욱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여수) 의원은 “김두관 최고

위원 등 영남세력들이 별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지도부 교체 및 당의 정체성 등을 주장하며 당의 단합을 해치고 있다”며 “이번 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 분명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체적으로 정권 창출을 할 동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이 정계개편을 주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낙연(함평 영광) 의원은 “고건 전 총리가 본격

적인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는데 다 열린우리당내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정계개편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석(담양 장성 곡성) 의원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과 정계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소위 민주세력 대통합을 위한 외연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여 후퇴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진급 의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치자”며 발빠르게 당 내부 수습을 꾀하고 나섰지만 이번 선거참패에 따른 심리적 충격과 파위낙 나트 당 전체가 구심점과 방향감각을 상실한 듯한 대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동영 의장 사퇴에 따른 후임 지도부 교체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내부의 심각한 이견이 표출되는 혼란상이 연출되고 있다. ‘첫날 밤’부터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우리당은 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후임 지도부 체제를 포함한 당수습방안을 논의했으나 최고위원들 간에 논란만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오는 5일 오후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후임 지도부 체제로 거론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첨예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의장직을 물러나기로 한 정 의장은 ‘김근태 승계’ 카드를 제시하고 최고위원단의 동의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이와 관련, 정 의장은 31일 밤 김 최고위원과 단둘이 만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테니 당을 이끌어달라”고 의장직 승계를 권유했고, 김 최고위원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두관 최고위원은 “원래 선거가 끝나면 지도부가 일괄사퇴하는 게 원론적이지만 지금 당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그냥 털어버리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김근태 최고위원이 승계를 당을 운영하는데 맞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한 채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막판까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김 최고위원측의 한 관계자는 “5일까지 숙고하고 고뇌하면서 주변 의견을 듣고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일 열린 의원총회-중앙위원 연석회의에서는 당 지도부 체제 정비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수면위에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계파나 그룹들은 당장은 선거패배의 충격 속에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이날 낮부터 속속 모임을 가지면서 당 수습방향과 당 진로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pgrade 세기보청기' (Upgrade Century Hearing Aid)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hearing aid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Leader of technological innovation), '다세대에서 동세대로 개량' (Improvement from multi-generational to contemporary), and '새로운 첨단보청기 기술' (New advanced hearing aid technology). It also features the 'Upgrade 세기보청기' logo and '신비' (Mystery) branding.